

제 4 강. 평신도의 리더십과 은사 개발

1부. 평신도의 리더십과 은사 개발

1.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거나 꿈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비전이 있었다(창7:1,5).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전이 있었다(창 12:1-3).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모세 역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3:10).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을 시작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애국심이나 철학이나 열정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언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었던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따라서 평신도의 리더십과 은사를 개발하려면 교회는 먼저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야 한다. 또한 비전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며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이상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정되는 것이다.

2. 비전을 이루는 능력이 지도력 (leadership)이다.

불려지지 않은 노래가 음악이 아니듯, 실현되지 않은 비전은 소용이 없다. 지도자란 비전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도력은 일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지도자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몸에 붙어야 한다.

아울러 지도력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겸허한 자기 성찰에서 나온다. 이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독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주위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지도력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잘 파악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지도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과 역사적 시점의 특성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성경은 또한 섬기는 지도력 (servant leadership)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기 혼자 성공하려고 하기보다 주위의 다른 이들을 성공시키려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위 사람들을 세워줘야 한다.

3. 평신도 사역자에게 사역의 비전과 리더십을 갖게 하라.

비전과 리더십은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 (potential)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회자는 평신도의 비전과 리더십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비전과 리더십을 실현시키는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성직자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파워를 독점해 왔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을 구경꾼의 자리에서 그라운드에서 실제로 뛰는 선수들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성직자들은 코치의 자리로 자리 옮김을 해야 한다.

4. 은사 (gift)를 점검하라.

성령의 세례와 임재가 있고 나면 그것은 곧 능력(power)과 은사(gift)들과 열매(fruit)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과 육체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 곧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은사는 주로 로마서 12장 6-8절(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 지도력, 긍휼), 고린도전서 12장 8-11절(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각종방언, 통역), 28절(사도, 선지자, 교사), 에베소서 4장 11-12절(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고린도전서 12-13장(방언과 예언), 베드로전서 4장 10-11절(봉사 및 청지기), 고린도전서 7장 7절(독신), 그 외 청빈의 은사(행 2:44-45), 순교의 은사(고전 13:3, 행 7:56-60), 선교사의 은사(엡 3:7-8, 고전 9:22), 중보기도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행 19:12, 8:5-8, 마 17:14-18, 막 16:17) 등이 있다.

이러한 은사들은 모두 신기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도의 리더십을 극대화하는 일은 은사를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5. 은사대로 사역하라.

은사에 따라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효과가 없고 전략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어진 사역에 대해 먼저 성도들 각자의 은사를 살피서 그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와 몸과 지체의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본질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목회철학의 원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목표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사역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해야 한다. 사역 그 자체는 건물과 같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은 은사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은사대로 사역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때, 평신도들의 리더십은 극대화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2부. 평신도와 목회자의 팀 사역

1. 목회자의 잘못된 견해

-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 내가 하여야만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
- 기름 부은 거룩한 주의 종인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 내가 직접 해야만 만족한다.
- 평신도는 너무 키우면 다루기 어렵다.
-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평신도는 골치 아프다.
- 평신도는 일하기 싫어한다.

2. 평신도의 잘못된 견해

- 사역은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다.
-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한다.
- 목회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졌다.
- 평신도는 목회자의 목회 대상일 뿐이다.

3.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이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관중으로서 목회자의 경기 내용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는 중압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평신도들은 이러한 목회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는 혼자 경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중석에서 구경꾼이 되어 버린 평신도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목회자는 경기자가 아닌 코치로서 평신도가 훌륭한 경기를 치르도록 훈련 시켜야 하고, 평신도는 구경꾼이 아닌 경기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코치는 경기자의 활약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의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은사는 각 성도들이 맡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목사들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깨어나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죽는데 있습니다.” - 그렉 옥덴

4. 평신도와 성직자는 목회의 환상적인 팀이 되어야 한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는 직능에 따른 차이이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는 동역자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직능에 따른 차이와 동역자 관계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세상의 발달된 많은 분야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회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돌보고, 평신도는 세상을 돌봐 줘야 하는 사람이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환상적인 팀 사역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 각 자의 분야와 영역에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일에 충실하며, 서로가 연합할 때 더욱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평신도와 성직자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 주는 환상적인 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5. 평신도 사역을 위해 사역 당회가 필요하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환상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교회의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 장로 제도와 사역 당회의 기능이다.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으로서 제직회나 위원회 그리고 당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교회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교회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며 비전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사역을 조화시키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비전 그룹”이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움직일 때 교회는 역동성을 갖게 된다.